

# 대학기술기반 벤처기업 육성방안

2009. 12. 16

교육과학기술부

# Contents

**I** 기술지주회사제도 도입배경

**II** 그간의 추진경과

**III** 기술지주회사 2015비전 및 지원정책

**IV** 기대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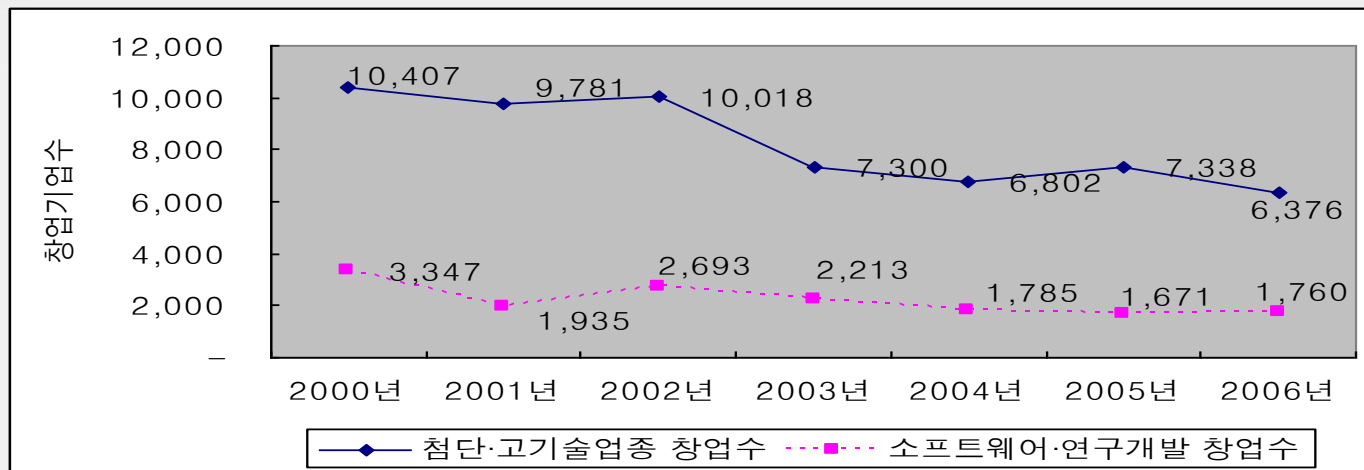
# I.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 배경

- 기술창업은 실패위험은 높지만, 고용의 질과 성장속도가 일반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**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**

\* 연평균 고용증가율('98~'06) : 중소기업(4.5%), 대기업(△4.2%), 벤처(21.4%)

\* 연평균 수출증가율('98~'06) : 중소기업(12.0%), 대기업(11.9%), 벤처(20.7%)

- 그러나, 전반적인 창업감소와 함께 기술창업도 감소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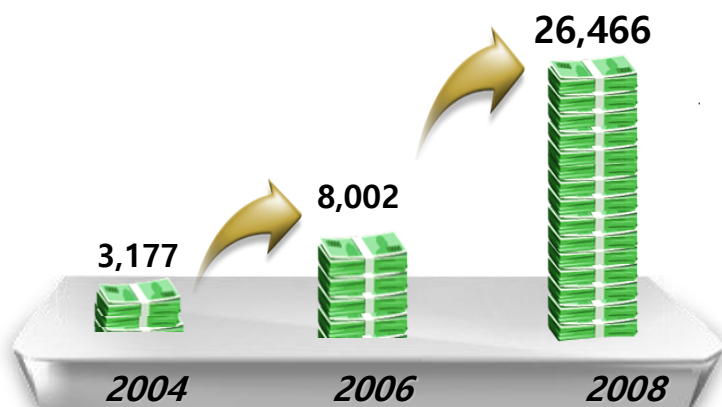


→ 사회전반의 창업열기를 재점화하기 위해 **기술창업의 요람인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촉진 필요**

## I.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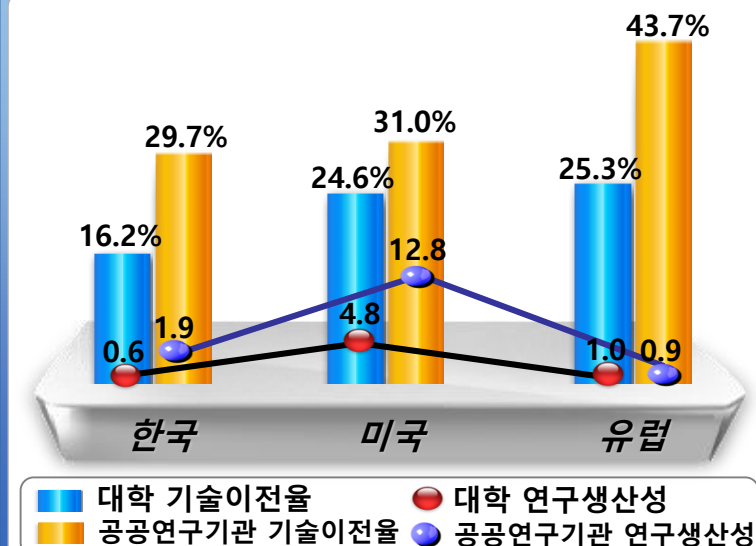
- 대학이 전체 박사급 인력의 67.5% 보유, 연구개발사용비율 10.7%
- 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은 증가추세이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음

### 대학 기술료 수입



 대학 기술료(백만원)

### 대학 기술이전 실적 국제비교



→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**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, 대학재정 확충**

## II. 그간 추진경과

### 추진경과

- 2005. 12월: 산학협력단 혁신방안 발표 [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도입]
- 2006. 06월: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도입과 발전방향을 위한 공청회
- 2007. 07월: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
  - ※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관련 조항 신설
- 2008. 01월: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
- 2008. 02월: 제도 시행 [법 발효]
- 2009.12월: 8개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



# 기술지주회사 설립현황

대학명	설립인가일	출자내역 (단위: 백만원)	자회사 설립현황
한양대	2008.7.24	총 3,591 [현금: 1,500/ 현물: 1,091]	① 트란소노(주) ② (주)코레스코 ③ (주)크린컴
서울대	2008.10.29	총 6,943 [현금: 3,000/ 현물: 3,943]	① (주)STH아이젠텍 ② (주)STH팜 ③ (주)STH아트엠
삼육대	2008.10.29	총 500 [현금: 157/ 현물: 343]	① SU건강 케어
서강대	2009.1.13	총 2,338 [현금: 400/ 현물: 1,938]	① (주)에스메디
경희대	2009.4.15	총 454 [현금: 100/ 현물: 354]	① 한방바이오(주)
강원대 (5개 연합)	2009.4.15	총 1,430 [현금: 500/ 현물: 930]	① (주)아이쿠 ② (주)AG그린 ③ (주)신타지아코퍼레이티드 ④ (주)하농바이오 ⑤ (주)엔바이오시스 ⑥ (주)심중수수산
고려대	2009.8.18	총 9,421 [현금: 4,000/ 현물: 5,421]	① 워델소재 ② 오라픽스
인천대	2009.10.	총 735 [현금: 100/ 현물: 635]	
계 (8개 대학)		총 25,412 [현금: 9,757/ 현물: 15,655]	'09.12 현재 17개 자회사 설립완료

# Ⅲ. 기술지주회사 2015비전 및 지원정책

## 2015 정책비전

대학 연구개발의 선순환 체계 구축  
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
## 2015 정책목표

기술지주회사

자 회사

일자리 창출

매 출 액

50개

550개

1만여명

3조  
3천억원

## 기술지주회사 지원정책

### 기술지주회사 설립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

1. 커넥트 코리아 사업(CK사업) 확대 추진

2.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

3.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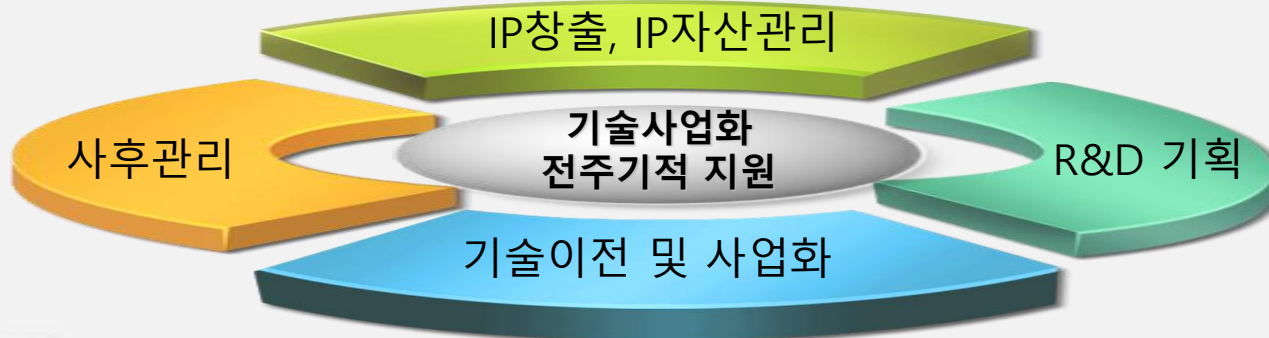
4. 기술지주회사 지원단 및 협의회 지원

5. 산학연협력 선진화 방안 수립 및 추진

# 1. 커넥트 코리아 (CK)사업 확대 추진

## 선도 TLO육성사업의 확대 추진

	현재(~2009년)	향후(2011부터)
지원금액	60억원	200억원 규모
지원대학	18개 대학	80개 대학
지원내용	전문가 인건비 지원 중심	기술사업화 전주기적 지원



## 2.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

### 기술지주회사 설립·운영 예산지원

-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선정하여 **기술가치평가, 사업화 컨설팅, 사업화 검증 기술개발** 등을 일괄 지원 (5억원 \* 10개 대학)

\* 기술현물출자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비용, 자회사 출자기술의 기술사업화 검증비, 자회사 설립시 전문기관의 컨설팅, 기술지주회사 교육훈련·세미나·홍보 등 지원



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·운영 지원사업(2010년 신규사업)

'09 예산	2010 예산(안)			
	교과부 요구	기재부 심의	국회 교과위 (예산결산소위)	국회 본회의 (예산결산위원회)
○	50억원	○	50억원	심의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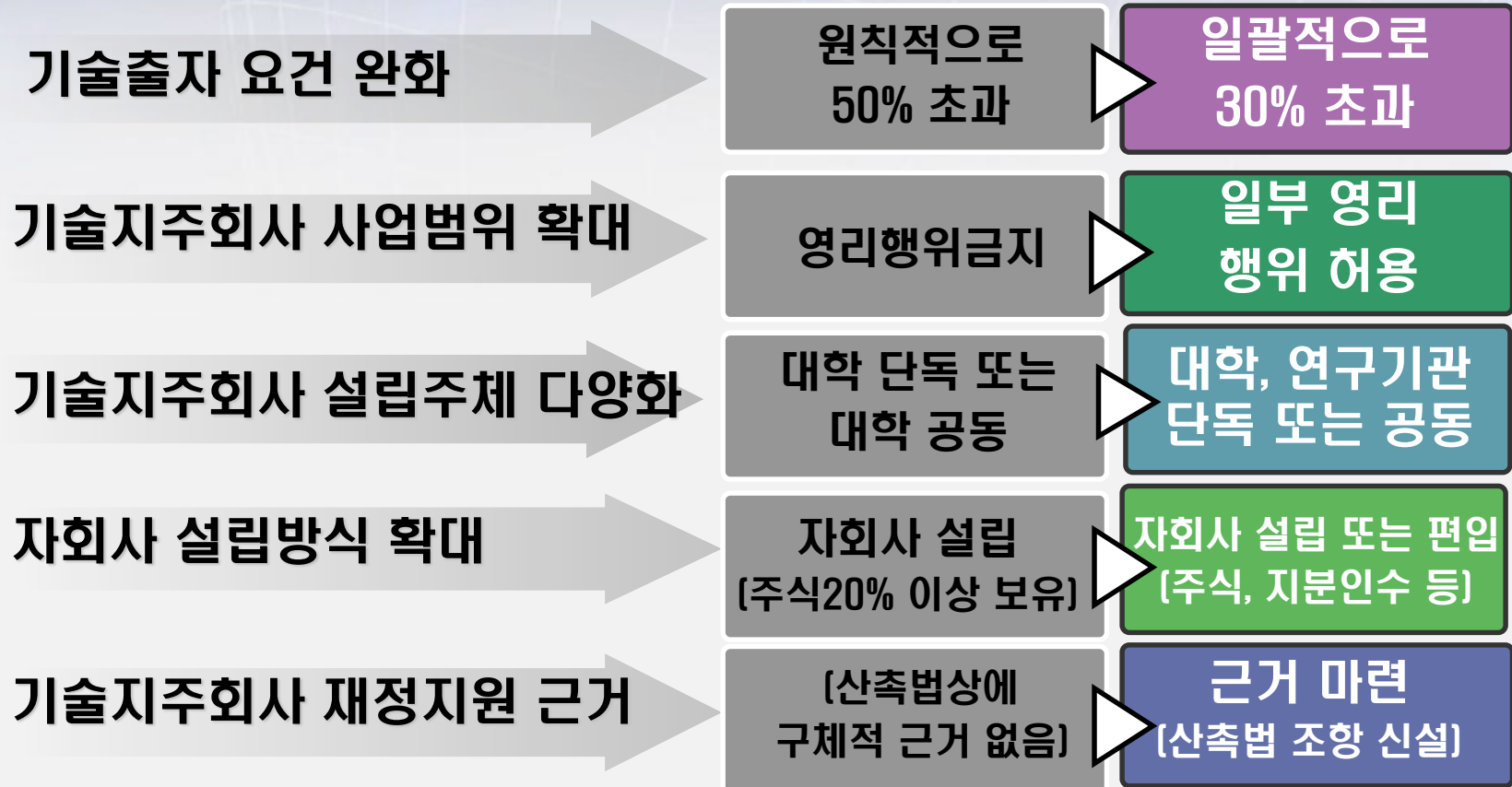
### 대학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

- 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

(기술료, R&D카드 캐시백,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)

### 3.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



## 4. 기술지주회사 지원단 운영 및 협의회 지원

### 기술지주회사 지원단 운영

- 특히, 금융, 마케팅 전문가 풀 구성 (한국연구재단 운영)
- 기술지주회사 설립 준비중이거나 운영중인 대학에 대해 세무·회계, 기술평가, 마케팅 등 일괄 컨설팅
-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사전심의 권한 부여



### 기술지주회사 협의회 지원

- 기술지주회사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의 중심체 역할
- 기술가치평가, 기술지주회사 전문교육 실시
-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,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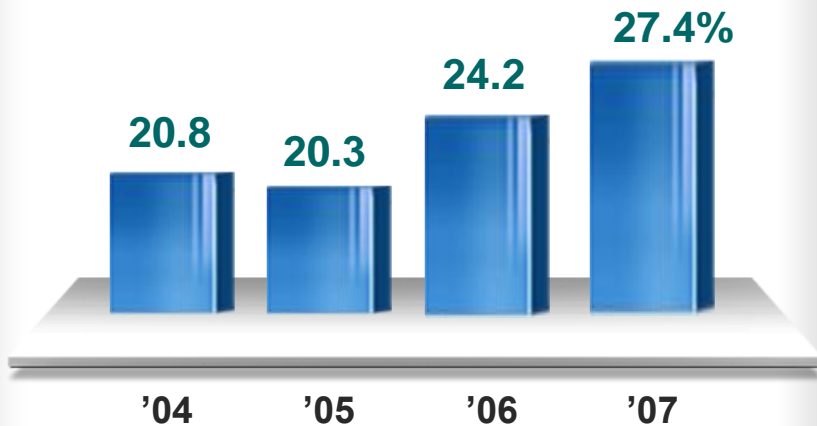
## 5. 산학연 협력 선진화 방안 수립 및 추진

### 산학연 협력의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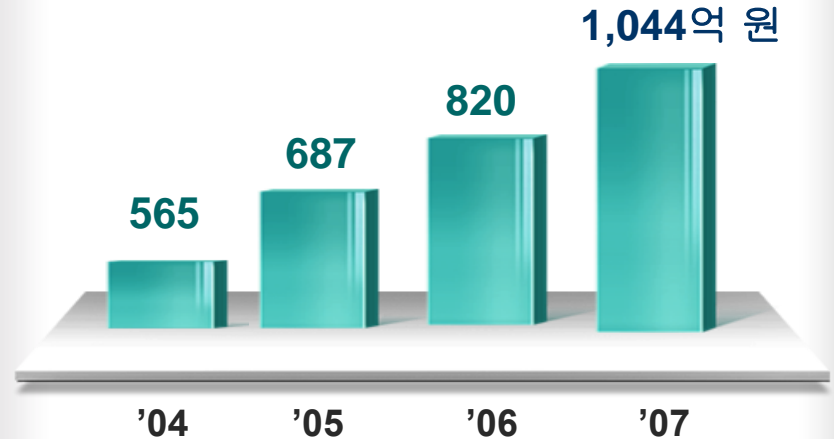
#### 기술사업화 실적 증가

- 대학 및 출연(연)의 기술사업화 기반 확대와 더불어 기술이전율 증가
- 우수 기술 발굴 및 권리화를 통한 기술료 수입도 증가

#### 기술이전율 증가



#### 기술료 수입 증가



# 산학연 협력 선진화 방안 수립 및 추진

##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

### 자발적 산학연 협력은 정체

-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42.9%만이 산학연 협력 경험 有
- 기업 투자액중 대학과 출연(연)에 대한 투자비중은 감소 추세  
[2.5%('00년) → 1.9%('09년)]

### 산학연협력의 구조적 장애요인 상존

- 산학연 공동연구의 장애요인인 불합리한 협약, 상호교류 미흡 등으로 상호불신 상존
- 산학연 주체간의 정보부족과 협력아이템 발굴 애로를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

### 산학연 협력기반 부족 및 정책간 연계·조정 미흡

- 획기적인 인센티브 및 개방형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산학연협력 기반 부족
- 부처별 산학연협력 사업 들 간의 유사 중복 문제 및 정책간 연계 미흡

## 산학연 협력 선진화 방안 수립 및 추진

# 목표 : 개방형 산학연 협력 추진을 통해 지식기반경제 선도

### 정책방향

**1**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인력양성

- 과제 1. 시장수요 맞춤형 산업 기술인력양성
- 과제 2. 연구인력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
- 과제 3. 시장중심의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

**2** 수요자 지향의 R&D 및 기술사업화 촉진

- 과제 4. 수요자 지향형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강화
- 과제 5. 대학·출연(연)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
- 과제 6. 기술시장을 통한 자발적 산학연 기술거래 촉진

**3** 산학연 협력 활성화 기반 강화

- 과제 7. 산학연 협력 정책 조정 및 네트워크 강화
- 과제 8. 대학·출연(연) 산학연 협력조직 역량 강화
- 과제 9. 산학연 협력 인센티브 확대
- 과제 10.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

# 산학연 협력 선진화 방안 수립 및 추진

## 추진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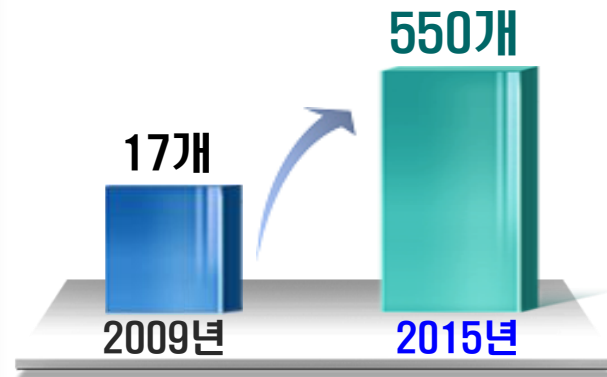


# IV. 기대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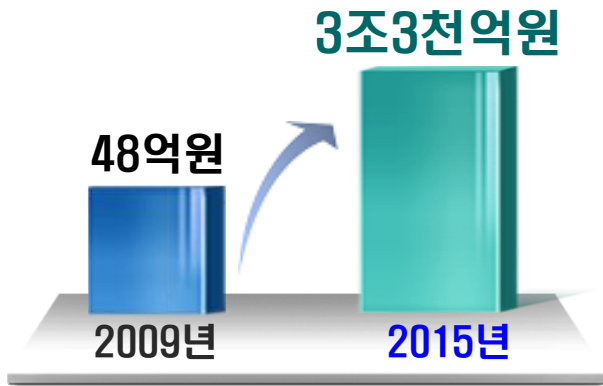
## 기술지주회사 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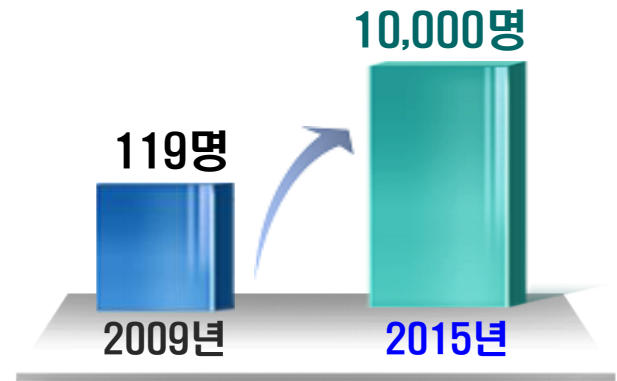
## 자회사 수



## 매출액 규모



## 일자리 창출



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벤처기업 육성에  
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이 앞장서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